

유영 부상 딛고 국제 피겨대회 정상

총점 134.75...쇼트·프리 모두 1위 월등한 기량 보여

‘포스트 김연아로 기대를 모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12살 ‘피겨 유망주’ 유영(과천문원초)이 무릎이 찢어지는 부상을 딛고 국제대회 정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의 어머니 이숙희(46)씨는 14일(한국시간) 뉴시스의 국제전화를 통해 “영이가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면서도 ‘대회 전에 다리를 다쳐(어머니로서)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유영은 대회 참가를 위해 오스트리아로 떠나기 전인 지난 3일 훈련을 하던 도중 다쳐 왼쪽 무릎을 여섯 바늘 꿰매는 수술을 했다.

티플컵 개최 일주일 전에 다리를 다쳐 수술을 했지만 이를 딛고 일어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우승 트로피를 안은 것이다.

다행히 유영은 현재 완쾌된 상태다. 지난 11일 대회를 마친 유영은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영은 오스트리아 티롤주 인스브르크에서 열린 2016국제빙상연맹(ISU) 티플컵 여자 피겨 싱글 어드밴스드 노비스만 13세 이하에서 총점 134.75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2위인 마리나 피레다(이탈리아·102.43점)와는 무려 32.32점차였다. 참가 선수 26명 중 유일하게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름, 3회전 연속 점프를 시도해 깨끗이 소화했



유영은 오스트리아 티롤주 인스브르크에서 열린 2016국제빙상연맹(ISU) 티플컵 여자 피겨 싱글 어드밴스드 노비스만 13세 이하에서 총점 134.75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다. 이씨에 따르면 유영은 대회를 마친 후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서 기분이 좋지만 실수를 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떠날 때에도 유영은 점수와 관계없이 클럽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삽입곡 ‘Don’t

You Worry Child(돈 유 워리 차일드)’에 맞춰 인도 소녀로 변신한 유영은 트리플 루프와 트리플 플립 동작에서 실수를 해 감점을 당했다. 하지만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높은 가산점을 받으며 나머지 연기를 깨끗하게 소화하고 경기를 마쳤다. 한국 스포츠 사상 모든 종목을 통틀어

최연소 국가대표로 화제를 모았던 유영은 지난 1월 피겨종합선수권대회 여자싱글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며 ‘포스트 김연아로 불리고 있다. 만 11세 8개월의 나이로 우승해 김연아가 2008년 이 대회에서 세운 역대 최연소 우승(만 12세 6개월)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U-12 유소년팀, 일본 가시마 팀과 교류전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의 U-12 유소년 팀이 일본 가시마 엔틀러스 유소년 팀과 친선전을 펼친다. 지난 12일 전북구단의 추천을 받아 전주를 방문한 가시마 엔틀러스 유소년팀은 15일까지 머물며 친선경기 및 교류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우호를 다진다.

가시마 유소년 팀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전북현대 U-12 육성반과 친선경기, 희망나눔 최강의 축구교실과 친선경기, 전주월드컵경기장 방문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시마 유소년팀 아마자키 육성부장은 “아시아 축구를 이끌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유소년이 만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며 “한국 최고의 클럽인 전북현대의 초청에 감사드리고,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축구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의 이철근 단장은 “유소년은 그 팀의 미래인 만큼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큰 배움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군산남초야구부 전국소년체전 전북대표 선발

군산남초등학교 야구부가 오는 5월 강릉에서 열리는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야구 초등부 전북대표로 선발됐다.

전북 대표 선발전은 지난해 11월 군산신봉초, 전주진북초, 군산중앙초, 군산남초 4팀을 상대로 1차 선발전을 진행했다. 1차 선발전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던 군산남초는 이번에 열린 2차 선발전에서도 전 경기를 콜드게임으로 승리하며 압도적인 전력으로 전북대표로 선발됐다.

호성적을 거둬주고 있는 군산남초 야구부원들은 정상수업도 열심히 받고 있으며, 방과후에 야구부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교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김민근기자

미니앨범 활동 마감 그룹 ‘여자친구’...결그룹 계보 다시 썼다

각종 음원차트 ‘올킬’ 타이틀곡 416시간 동안 멜론 1위

그룹 ‘여자친구’가 13일 SBS TV ‘인기가요’를 끝으로 49일 동안 이어진 세 번째 미니앨범 ‘스노플레이크(Snowflake)’ 활동을 마감했다.

여자친구는 이번 활동으로 국민 걸그룹의 계보를 다시 썼다. 컴백과 동시에 각종 음원차트를 ‘올킬한 타이틀곡’ 시간을 달려서는 무려 416시간 동안 멜론 차트 1위를 지키는 괴력을 발휘했다.

앨범은 3월 첫 주 미국 빌보드 월드앨범 차트 10위를 차지했고, 중국과 일본 차트에도 이름을 올리며 해외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지난달 2일 SBS MTV ‘녀쇼’를 시작으로 가요방송 1위를 휩쓸며 28일 SBS

TV ‘인기가요’까지 무려 15개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여자친구 멤버들은 처음 1위 트로피를 거머쥘었던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올해의 목표로 삼았던 건데, 많은 사랑을 주셔서 빨리 이를 수 있었어요. 저희가 그날 상 받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1위 발표하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감정에 북받쳤던 게 생각이 많이 나요.”(영지)

“되게 신기하고 저희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뒤에서 박수만 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앞에 나가서 서 있고 안코르곡도 부른다는 게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예린)



“여러분의 응원이 헛되지 않게, 갖고 닦고 드리는 여자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소원) /인진수 기자

사랑의거북이 전국 마라톤대회 31일까지 참가 접수

사랑의 거북이 전국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노경원)가 오는 4월8~9일 개최되는 제13회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장애인의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13회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대회는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한 힘찬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도우며 사랑과 화합을 이루는 이번 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익산=장영원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